

시론

여름휴가 여법하게

급변 여름은 뜨거울 모양이다.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7월 하순에 중복과 대서가 겹쳤으니 7월은 이래저래 혹서(酷暑)에 시달리게 될 모양이다.

태풍과 지진에 의한 지구촌 곳곳의 재앙에다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재해까지 겹쳐 생태계 전체가 무질서 속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플로리다의 장림(長林)까지 불타올라 대기(大氣)를 뜨겁게 가열시킨 모양이다.

연진 데 달친 것으로 기업의 도산과 은행의 회축, 대기업간의 빅딜 등이 일시에 몰아닥쳐 더욱 '카오스'의 복잡성을 실감시키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망할 수 없게 한다. 말하자면 IMF 한파로 경제전망이 흐린 데다가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의 급증으로 사회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서 몇 째 더 무더위를 가중시키고 있다.

천지인(天地人) 전체가 혼돈의 와중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할까.

우리가 일찌기 겪어본 적이 없는 혼돈의 복잡성에 직면하여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

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을 여름에 무더위까지 기승을 떨치고 있으니 여간한 인쇄성을 갖지 않으면 삼복더위를 무탈하게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이런 때에는 휴가를 멀리 떠나기보다는 이웃의 산사(山寺)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 앉히고 혼돈의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자칫하면 혼돈의 복잡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더욱 혼돈의 와중으로 함몰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고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잡고 조출하고 진솔한 개인문화(個人文化)에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의식의 전환을 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작년

여름 휴가 때까지 되어먹지 않은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엉뚱한 곳에 가서 많은 것을 지냈다. 바로 몇 달 뒤에 올 환란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접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했다.

올 여름 휴가에는 명확한 판단력으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하면서 우리가 처한 난국으로부터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생각을 가다듬어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관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당한 사고의 규범을 세워 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

실체가 불확실한 '거품'을 뽑아내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선사들은 의식을 집합하기 위하여 사고의 규범을 설정했다. 그리고 행위를 단순화시켰다. 자신의 시선을 자기의 욕리(屋裏)로 되돌리기 위해 서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을 이곳 저곳에 걸어 두었다. 이 경구는 흔히 산사의 깃들 위에 걸렸다. 자기가 벗어 놓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다. 조고각하라는 경구를 대하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경계로 느껴져 즉시에 행

동을 단정히 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발전주의에 휘말려 조고각하나 소욕지족(少欲知足)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외적인 삶의 조건개선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내적인 정신의 승화에도 마음을 쏟아야 한다.

올 여름휴가에는 헛된 생각과 행동을 여제하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눈길을 자기의 내면세계로 돌리면서 소욕지족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는 산사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냈던 자기자식과 얼굴을 마주하는 여름휴가를 보내면 어떨까.



향적

(스님·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

“ 가까운 산사 찾아 허망함 쫓던 분주함 털어내고 자기 내면을 보자 ”

열린마당

승복의 값과 디자인

승복 가격을 두고 말이 많다. 최근 승복에 패션개념이 도입되면서 양복 두세벌 값을 호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승복 가격도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승복 판매자들은 수공이 많이 들어가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한다. 색상과 디자인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전반기의 팽창하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승복의 가격, 색상과 디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조계사 부근 한 승복점에 진열된 승복.

“출가자 본분맞게 가격현실화 시급”

지현스님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승복은 가사와 장삼을 비롯하여 수행자의 복장을 통칭한다. 조계종에서는 의제법을 두어 출가자의 분함과 용무에 따라 복식을 구분하고 있다. 출가자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수행과 교화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의제법의 질서를 문란케 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승복은 승가를 상징하는 수단이며 수행자의 의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을 살펴보면 원단의 가격 및 제작비 등의 이유로 비싼 값을 매기고 있다. 1백만원이 넘는 승복도 있다. 승복집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고가판매 전략을 쓰고 있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승복은 그 만듦새와 모양, 색상 등이 각각의 색이다. 통일된 기준없이 영세업체에서 임의적 생산되고 있으며 색상과 모양 그리고 복지가 천태만상으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조계종은 가사는 파색(靑色)으로, 장삼 등은 수목색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극적분류의 색상이나 형태가 남발하고 있다.

승복에 대한 스님네들의 의식 또한 문제이다. 경상북도 수목색의 색깔은 입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흰색은 물론 다양한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통일된 의복이 아니라면 과감히 벗어 버릴 수 있는 의식과 사고가 의제를 개혁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평상복은 현대적 디자인 허용해야”

이민향 (생활한복 디자이너)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상과 기능성, 감각적 디자인을 추구한 승복이 선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승복의 전통성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전통성의 변질이 아니라 '개량'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간편함과 미적 감각,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직을 차림이 당연하다.

승복의 중요한 복식은 승복 제작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식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무형문화재 소유자처럼 종단에서 양공장(良工匠)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은 거주장소처럼 쉽게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미적 감각을 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허리나 발목을 묶는 끈 대신 단추나 벨크로테입(일명 찍찍이)을 이용한 승복이 스님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먹물색이 아닌 은은한 파스텔톤의 승복도 인기품목 중에 하나이다.

어느 집단이 통일적으로 입는 의복은 그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복 제정에 신중을 기한다. 시각적 효과는 첫 인상을 형성할만큼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입는 승복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일반인들의 불교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상매체로 불일 정도로 색감과 디자인에 예민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느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조계종의 경우, 용무에 의한 복식을 법복과 예복,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복과 예복은 불교의 권위와 법의 상징으로서 격

강원도 정선의 한 스님은 최근 승복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백만원 값을 호기하는 승복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대부분 승복이 예상외로 고가여서 구입할 수 없었다고 스님은 말했다.

승복이 일반의류와는 달리 법의(法衣)라는 종교적 특징과 주로 신도들의 보시로 이뤄지고 있어 이왕이면 고가의 승복이 선호된다. 게다가 각 승복점들도 이를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승복의 가격은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승복이 고가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애용하는 승복의 경우 1벌에 15만원에서 30만원 선이다. 그러나 옷값이 고금화될수록 가격도 급상승한다.

이에 대해 승복점들은 다른 의류에 비해 수공이 많이 들고 기성복처럼 다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비싼 편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재료비나 수공비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즉 재료·제작비 등 원가에 비해 3~4배 높게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모시나 삼베 실크 등의 승복은 1백만원 값을 호가할 정도로 한류 구매자들은 “승복 가격도 거품을 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승복점은 서울조계사 주변에 23개의 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전문 승복점은 17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불구용품, 서적 등과 같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18개 업체가 전문 승복점으로 있으며, 이밖에 불구용품과 같이 겸하는 곳까지 합하면 50여개의 매장이 있다. 김준근·김지연 기자(gamja@buddhopia.com)

승복은 때와 장소와 역할과 필요에 따라 법복, 예복,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으로 구별된다. 율장(律藏)에는 법복을 속복과 달리하고 있는데, 법의는 △옷감 △색깔 △마모질을 여법하게 해서 수도인의 안분(安分)에 어울리도록 하라고 적고 있다. 옷감은 명주·비단류를 피하고 색깔은 후르칙하든지, 거무스름하든지, 붉으스름하든지 한 종류로 화사하지 않고 수수하고 고상한 빛깔을 택하라 했다.

세종 때 금령에 의하면 승려의 의복에 검정색의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시색(時色): 회색과 비슷한 거무스름한 색)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색은 승복의 전통이 되어 현재에도 장삼과 평복 및 소지품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시색의 낡은 천을 기워 모아 만들었던 기준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승복에도 ‘패션바람’이 불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이 선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cancer treatment (각종 癌 치료)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text about medical science and recovery.

Advertisement for a marriage research center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with a woman's portrai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추천 옥산가 옥의 신비!) with diagrams and text about vitality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a funeral service (윤달수의) with a map of Korea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branches.